

5·18법 국회 통과 촉구안 채택 의장단 선출 등 자리다툼 눈총

광주시의회 결산

에너지자립도시 청년특위 등 구성 폭우피해현장 찾아 시민 의견청취 보좌관 급여 착복 등 갑질 논란도

제8대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020년 한 해 동안 124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272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21건, 동의·승인안 80건 등 총 45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5·18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했고,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17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구조와 일부 의원의 갑질 논란 등 오점도 남겼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제2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10회, 124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272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21건, 동의·승인안 80건 등 총 45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전체 조례안 272건 중 56%인 153건이 의원 발의로 제정된 것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평가

된다. 특히 청년을 위한 정책발굴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 방안 모색,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 도시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폭우피해현장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현장 등 41곳에 달하는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반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선출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끼리 계파 간 자리다툼으로 오점을 남겼고, 마지막 정례회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이 예정위에서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증액되는 등 변칙적인 회의 진행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다.

나현 전 의원이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으로 제명되고 새로운 의원으로 대체된 것은 의회 내부 자정 기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새해에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앞당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재난지원금·일자리 창출 성과 의장 불신임안 제출 오점 남겨

전남도의회 결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전국시도의회 의장협회장 당선 의대설립 건의안 등 61건 채택

제11대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2020년 코로나 19 사태와 태풍·홍수 등 유례없는 재해 앞에서 회기를 늘려가면서 각종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정 활동을 벌였다.

전통시장과 구래 등 수해지역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얻고,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배출하는 성과도 올렸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16일까지 총 12회, 129일간(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10회 69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국가 재난대비와 도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 등 436건(2019년 403건)을 처리했다.

또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 부처 변경 촉구 ▲공수처법 개정 및 검찰개혁 완수 촉구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등 61건의 건의

결의안을 채택, 도민들의 대변인 역할도 수행했다.

2021년도 전남도 예산심사에서는 해의 연수비를 삭감하고 취약계층의 예산을 늘려 총규모 9조 2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조 43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위해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하여 회기 일수를 증가시켰다.

목표와 여수 재래시장, 구래·곡성 등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해 피해복구 지원에도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바 작년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전남도의회는 그러나 의원이 뽑은 도의회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불협화음 모습도 보였다.

비주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5분 발언 제지 등을 문제 삼아 자당 소속 의장 불신임안 발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앞장서 지방의회를 희화화했다", "의장을 흔들고 망신주려고 불신임안을 냈다"는 목소리가 의회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재양성 요람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728명 모집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광주·전남 인재양성의 요람인 서울 제1, 제2 남도학숙의 2021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제1학숙(서울 동작구 소재) 424명, 제2학숙(은평구 소재) 304명 등 총 728명이며,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사·도별로는 광주시 362명, 전남도 362명, 장애인 4명이며, 제2학숙의 장애인실은 사·도 구분없이 입사할 수 있다.

지원은 공고일인 28일 현재 보호자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에 있고,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생이면 가능하다. 아직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수도권으로 전학할 예정이라면 이번엔 지원해야만 내년 3월 입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원자는 광주시와 전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향'과 남도학숙 홈페이지 '공지사향'에 게시된 지원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내년 1월5일부터 21일까지 보호자 주민등록지인 광주시청, 전남은 사·군청에 우편접수하거나, 남도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입생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정도 100%, 재학생은 학교성적 30%와 생활정도 70%를 반영해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 대상자 등은 가점 혜택도 있다. 입사 대상자와 예비순위는 내년 2월4일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994년 제1학숙(정원 850명)을 공동 건립한 후 2018년 제2학숙(정원 604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버스 이동 선별검사 서비스 코로나19 무증상환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전파·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 이동 선별검사 서비스 발대식이 28일 오전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강영구 보건복지국장 등 참석자들이 이동버스를 한송하고 있다.

광양·여수·목포항 2030년까지 1조7405억 투자

원도심 활력제고 등 항만재개발 부산·울산·경남의 30% 수준

정부가 2030년까지 6조8000억원을 들여 서울 여의도 7배 면적에 달하는 전국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에서는 광양항, 여수항, 목포항 등에 1조7405억원(기존 사업비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의 5조6929억원에 비하면 30%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항만의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원도심 활력제고형, 해양산업 육성·지원형, 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3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원도심 활력제고형은 활력이 저하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인접한 노후 항만공간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재생 또는 현대화하며, 해양산업 육성·지원형은 산업시설, 해양관광·문화시설 등 지역 신성장 동력이 될 시설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에서는 광양항 묘도(면적 312만1000㎡), 광양항 제3매립지(433만1000㎡), 여수항 신항(79만8000㎡) 등이 해양산업 육성·지원형으로 각각 2528억원, 7190억원, 5669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목포항 내항(2만7000㎡)은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183억원이, 목포항 남항(38만㎡)은 원도심 활력제고형으로 1835억원이 2030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본격 시동

진도 금호도·완도 금당도 자원조사

전남도는 내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진도 금호도와 완도 금당도에 대한 섬별 개발주제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섬 가꾸기에 나선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조사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주민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 조사를 비롯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마을기업 육성 방안, 사업부지 확인, 섬 주민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위원들은 진도 금호도에 대해 섬에서 생산된 전복·문벌치·더덕 등 특산품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제작·판매하는 일명 '배타고 장보러 가는 로컬마켓'과 예부터 불려오던 '김 섬'의 이미지를 살려 김공장을 재생해 여행객을 맞이하는 다이닝(Dining) 프로그램 운영, '생달나라' 천연향균 성분(시네올, 시멘)을 활용한 의료체험관광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완도 금당도에 대해서는 섬에 방치된 냉동 창고와 해조류 건조장을 재생하는 '금당 스테이' 조성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 및 아름다운 해안절벽으로 형성된 금당8경을 상징화한 포토존 제작, 육로로 경관을 둘러보고 체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컨테이너 캠핑장 조성' 등 사업들이 논의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만들기!

제2호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

안전마을 동명동 (동구)
 주민협의체·안전지킴이 실천단 구성을 통한 주민 안전역량 강화
 우수시책 취약지역 안전시설물(로고젝터, 보이는 소화기 등) 설치로 마을 안전문화 확산 우수

안전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 (남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타인배려 생명존중 교육·캠페인 전개
 우수시책 전국최초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줄이기 대책 우수

안전기업 (주)동양정공 (광산구)
 제조업 PRESS LINE 지속적 공정개선을 통한 자동화 설비 구축
 우수시책 제조업 3대 재해(끼임, 떨어짐, 부딪힘) 예방을 위한 전직원 참여 재해예방 활동 우수

혜택 안전인증서 인증, 인증 명판 부착(제막식),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안전인증서 인증 : 분야별 인증(광주광역시장)
 안전시설사업비 지원 : 총 30백만원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각 10백만원

| 문의 | 시 안전정책관실 T. 062-613-4933